

논문접수일 : 2012.10.06

심사일 : 2012.10.12

게재확정일 : 2012.10.27.

국내 여성용 승마바지의 디자인 분석

A Design Analysis of Ladies'Equestrian Breeches in the Korean Clothing Market

하 희 정

상명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Ha hee-ju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angmyung University

* 이 연구 논문은 2012학년도 상명대학교 교내 선발과제 연구 지원에 의한 결과임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국내 승마인 및 승마 현황

2.2. 승마용품업체 현황 및 기승복장

3. 연구 방법 및 절차

3.1. 연구대상

3.2. 분석방법 및 절차

4. 연구 결과 및 고찰

4.1. 여성 승마인의 바지 착용 사례 분석

4.2. 승마용품업체의 여성용 승마바지 디자인 분석

5.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및 기능성을 겸비한 중저가의 승마 바지 개발에 앞서, 여성 승마인의 바지착용 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국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여성용 승마바지의 디자인을 분석 및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실루엣은 신체에 매우 밀착되는 형태가 91.9%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앞허리 부분에 2개의 주름이 있어 약간의 여유가 있는 형태, 허리에 주름이 없고 힙 부분에 여유가 있는 형태, 부츠컷 형태, 배기 형태 등이 있었다. 디테일은 엉덩이와 무릎 전체에 가죽을 댄 경우가 85.4%로 가장 많았고, 허리 아래 가로 지퍼로 포켓을 가진 경우가 73.3% 가장 많았다. 색상은 블랙이 가장 많았고, 베이지, 화이트, 브라운, 카키 순으로 나타났다. 소재는 면95%, 스판 5% 소재로 만들어진 것이 25.8%로 가장 많았고, 면65%, 나일론 27%, 스판 8% 소재가 22.5%였다. 가격대는 25만원~29만원대가 가장 많았

고, 10만원대 미만은 매우 적게 나타났다. 따라서 디자인 및 기능성을 겸비한 중저가 승마바지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승마 바지, 디자인 분석

Abstract

As a precursor to the development of such breeches, this study examines the types of pants worn by adult female riders and analyzes the design of female equestrian breeches sold online and in retail shops in Korea.

In case of silhouette, a predominant majority of the products (91.9%) offered a tight fit around the lower body. Other designs included a pair of tucks on the front waist area to provide ease, those with ease in the hip area without any tucks on the front waist area, boots cut, and baggy. Regarding the detailing of the breeches fit tight around the lower body, 85.4% had leather patches over the knee and hip areas. Most breeches did not have any back pockets, and 73.3% had pockets with zippers below the waist. In case of color, black was most common, followed by beige, white, brown, and khaki. As for materials, 25.8% of the breeches were made with 95% of cotton and 5% of spandex. 22.5% were made with 65% of cotton, 27% of nylon, and 8% of spandex. The most common price range for female riding breeches sold in the market was 250,000-299,000 won, and only a small number of products were available for less than 100,000 won.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riding breeches need to be developed that offer design and functionality at reasonable, affordable prices.

Keyword

equestrian breeches, design analysis

1. 서론

승마는 올림픽에서 유일하게 동물이 참가하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같이 경쟁하는 유일한 종목이다. 말 위에서는 연령, 성별의 구분이 필요 없는 평등의 스포츠(승마매거진, 2011.5/6)라고 할 수 있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바라보고, 주 5일제 근무와 주 5일제 수업이 제도화됨에 따라, 주말 레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주말 레저 활동 중에서도 승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승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최병익, 성상우, 김호순, 2004). 이에 한국마사회는 승마활성화를 위해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승마시설의 확충 필요성을 느끼고, 2006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승마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승마전문인력 공급도 중요하므로 2009년부터 생활승마교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말 관련 고교 및 대학 등에도 시설과 마필을 지원하고 있다(승마매거진, 2010.3/4). 또한 승마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2009년에 시범 실시된 전국민말타기운동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민말타기운동 사업은 생활체육전국승마연합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승마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승마를 국민스포츠로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말의 활용 및 수요를 증대시켜 말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승마매거진, 2011.3)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승마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2012년 기준 승마인구가 5만 명 수준에 이를 것이며, 승마산업의 규모 또한 약 1조 5,000억 원에 다다를 것(박용식 외 2012)으로 예상하고 있다.

승마는 중력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양발에 의한 이동 운동과 달리, 간접적인 중력의 영향 아래 인간과 말이 상호간 신호에 따라서 동작의 협응(協應)이 이루어지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운동(오운영 외, 2009)이다. 승마자가 승마를 할 때에는 기승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승마 장비를 갖추고, 복장은 정장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시험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의의 경우 필러이는 부분

만 없으면, 어떠한 옷이라도 상관없다. 하의의 경우 초보자들은 처음 승마를 배울 때에 청바지를 입고 승마를 하는 경우가 있다(승마매거진, 2010.11). 그런데 청바지처럼 바지가 뻣뻣하거나 솔기가 두꺼울 경우, 승마 특성상 안장과 마찰로 인하여 불편하고,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승마매거진, 2011.7) 청바지보다는 다리 안쪽에 솔기선이 없는 승마 바지를 입고 배우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승마바지는 승마자세의 기능과 동작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안장과 접촉하는 부분은 내구성이 좋고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좋은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격렬한 동작에도 편안함을 느끼고 촉감을 좋게 하기 위해 탄력 있고 견고하게 디자인된 것이 특징(김운영, 2009)이다. 그러나 품질이 좋은 것은 가격대가 높고, 안장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 안장과 접촉되는 부분에 내구성이 좋고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소재가 덧대어져 있으며, 신체에 매우 밀착되는 형태이므로, 골프 웨어처럼 평상복으로 입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동안 승마와 관련한 선행 연구는 주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승마산업 도입 방안 연구(김명희, 최병익, 2010), 제주마를 이용한 승마 운동에 관한 연구(오운영외, 2009), 승마용 헬스케어로봇 시스템에 관한 연구(임미섭, 임준홍, 2009), 승마 로봇 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박용식 외, 2012), 뇌성마비 아동에 대한 승마시뮬레이션 훈련에 관한 연구(강권영, 송병호, 2010), 퇴행성관절염에 대한 승마 복합치방에 관한 연구(신예지외, 2010) 등 주로 승마산업 또는 운동 및 치료적 승마와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승마복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승마용품업체의 현황 및 승마복 제품 분석(하희정, 2011)이 있으며, 국내 승마인 및 승마 운동 현황, 승마복 디자인 분석 및 개발 등과 관련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승마에 대한 관심 고조로 승마인구가 증가추세이고, 한국마사회를 중심으로 국가적인 다양한 사업을 통해 승마 인구의 저변확대 및 말 산업 육성을 독려하는 시점에서, 골프웨어처럼 평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는 승마복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승마인의

승마복 착용 사례 및 승마용품업체의 승마복 디자인 분석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마사회가 승마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 전국민말타기운동에 참여한 여성승마인의 바지 착용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승마용품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성용 승마 바지의 디자인을 분석해봄으로써, 디자인 및 기능성을 겸비한 중저가의 승마 바지 개발 및 평상복으로도 활용 가능한 승마 바지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국내 승마인 및 승마 현황

말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는 ‘말 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2012년 7월 16일 확정·발표했다. 이를 통해 2016년까지 말 산업 고용창출 규모를 약 1만 명으로 늘리고, 연관 산업 생산 유발 규모를 약 800억 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말 농가수를 현재 1900호에서 2016년까지 3000호로 늘리고, 3만두의 말 사육 규모를 2016년까지 5만두 규모로 키울 계획이며, 승마장 수는 300개소에서 500개소로, 승마 인구는 2만 5천명에서 5만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아시아경제, 2012. 7. 16).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를 말 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는데, 한국마사회가 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청소년 승마 활성화 부문이다. 승마가 학교 체육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을 상대로, 방과 후 수업으로 승마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초중고생 승마체험, 저소득층 승마교실, 찾아가는 승마교실,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학생 승마 캠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스포츠조선, 2012. 7. 16). 이는 승마 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기간 산업으로 육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마선진국인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생활 승마가 일반적이다. 각 지역마다 소규모의 승마장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집근처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승마를 즐길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승마가 귀족스

포츠로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접근성과 비용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승마매거진, 2011 5/6). 말 산업 육성법 통과에 따라 기존의 승마장과 달리 농어촌에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이 널리 보급될 예정이다.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승마뿐만 아니라, 관광승마체험, 승마트레킹, 승용마 임대 등의 사업도 가능하다. 면적 500㎡, 말 2두면 가능하므로 소규모 자본으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승마매거진, 2011. 5/6)고 한다. 국내의 마필두수는 1990년의 4,912두에서 2006년의 22,680두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0년 기준 약 27,046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국의 승마인구는 약 20만 명에 달하고 승마장도 200개에 달하여, 마필산업의 경제규모도 연간 약 2.4조 원~9조원으로 추산된다(김명희, 최병익, 2010)고 한다. 정부에서도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매년 승마장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주, 영천 등 지자체에서도 직영승마장을 운영하는 등 승마장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승마장도 2014년에는 50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승마매거진, 2011, 5/6), 이와 같이 승마장의 접근성이 개선되면, 승마비용도 현재보다 좀 더 저렴해질 것으로 보이며, 대중 스포츠로 인식될 날이 요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말 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마사회에서는 승마 대중화를 위해 2009년부터 국민생활체육전국승마연합회와 공동으로 전국민말타기운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습비는 승마교실별로 최소 50%에서 최대 70%를 한국마사회가 부담하므로 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부담 없이 승마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뉴스1, 2012.7.25). 전국민말타기운동 사업에 참여한 승마인은 2009년에는 2600명, 2010년에는 4300명, 2011년에는 6500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승마매거진, 2011, 3/4), 앞으로 승마가 대중 스포츠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승마운동은 말이라는 생명체와의 교감을 통해 정신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어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의 재활요법으로도 그 쓰임새가 확장되고 있다(박용식외, 2012). 특히 최근 10년간 뇌성마비뿐만 아니라

다발성 경화증, 외상성 뇌손상, 발달지연, 근위축증과 감각 손상의 치료로도 시도되어져 왔다. 승마치료는 말의 걸음걸이에 기초한 치료 원칙으로 리듬감 있는 움직임이 자극이 되며 몸 전체의 감각 수용기에 전달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강권영, 송병호, 2010). 승마를 통해 신체 장애인에게는 신체교정 및 근육 발달의 효과를 얻고, 정신적 장애인에게는 동물과 접촉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과 정서적 만족을 주게 되는 것이다.

말의 걸음은 몸의 중심을 위와 아래, 좌우 그리고 회전으로 이동시키는데, 이것은 사람이 걸을 때 체간과 골반의 움직임 패턴과 비슷한 양상을 야기시킨다. 승마를 통한 효과는 골반과 요추 및 고관절의 움직임으로 자세와 균형향상에 도움이 되고 근 긴장도의 감소, 머리와 체간조절의 향상과 체간에서의 평형반응의 향상이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Liptak, 2005), 말의 율동적 움직임의 자극을 통해서 자세조절을 위한 자율반사기전과 치료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Heine, 1997)고 보고되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마사회와 삼성승마단에서 재활 승마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마사회가 연세대 의료원과 함께 재활 승마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공동으로 게임중독 청소년 재활 승마를 확대하는 등, 재활 승마의 수요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말산업육성법에 따라 재활승마지도사가 국가자격으로 신설될 예정이어서(승마매거진, 2011, 5/6), 본격적인 재활치료로서 재활 승마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2 승마용품업체 현황 및 기승 복장

국내 승마관련 시장은 2010년 기준 약 1000억원 내외이며, 이 중에서 55%를 승마복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승마산업이 활성화 되어 있는 유럽은 연간 4조원, 미국은 2조 5천억원, 비교적 뒤늦게 승마 대중화가 이루어진 일본과 싱가포르도 연간 2조원 규모이다. 국내 사설승마장과 승마클럽이 증가하면서 골프웨어, 바이크웨어에 이어 승마웨어가 국내 레포츠 시장의 새로운 기대주로 부상하고 있다(패션비즈, 2011, 1). 하희정(2011)은 국내 승마용품전

문 온/오프라인 쇼핑몰 현황과 업체에서 판매되는 승마복 제품을 분석하였다, 하희정(2011)의 연구에 의하면, 온/오프라인 쇼핑몰 23개 업체 중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는 65%였고, 1980년대에 오픈한 업체가 2개였으며, 이들 업체는 승마화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승마복이 일어난 2006년도에 4개 업체가 오픈했으며, 2006년 이후에 오픈하거나 승마용품으로 업종을 변경한 업체는 13개 업체였다. 승마용품업체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주로 승마복, 승마화, 승마모, 장갑, 안장, 굴레, 재갈 등이었으며, 이 모든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4개 업체였고, 1~2개만 전문으로 파는 업체는 3개 업체였다. 판매하는 승마복 아이템은 바지, 재킷, 점퍼, 조끼 등이었으며, 이 모든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7개 업체였고, 1~2개의 아이템만 전문으로 파는 업체는 6개 업체였다. 승마복 중에서 승마 바지는 22개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승마바지가 승마복 판매의 주력상품이라고 하였다. 또한 독일 수입품이 많아 사이즈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으며, 수입품으로 인해 가격대가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품질 좋은 중저가의 승마복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승마에서는 복장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혜선외(2001)는 승마에서의 복장은 매우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 재킷(흑색, 적색), 승마바지, 승마부츠, 모자 등을 완비하지 않으면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수의 체중은 기록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수복의 소재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인자는 온도 변화나 기후 변화에 따라 중량을 초과지 않도록 하는 소재의 경량성이라고 하였다. 또한 격렬한 운동에서 오는 신체 내의 발한과 기후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투습·발수성이 고려되면서 신체에 적합하고 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신축성 있는 소재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운영(2009)은 마장마술 복장의 경우 연미복에 실크모자와 흰색 승마바지, 부츠, 장갑을 착용하며, 점핑의 경우에는 재킷에 안전 헬멧과 부츠, 장갑을 착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크로스컨트리 복장의 경우는 헬멧과 안전 조끼로 머리와 몸을 보호하고, 부츠와

장갑은 발과 손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연습 복장의 경우, 특별한 형식은 없고 안전을 대비해 단정하게 입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승마를 할 때에는 기승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승마 장비를 갖추고, 복장은 정장을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시합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승마 복장에 특별한 형식이 없고, 지면에 있을 때나 기승할 때나 안전함이 가장 중요하므로, 위험에 대비하면서, 속보나 구보와 같은 격렬한 동작에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습 복장이라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상의의 경우 팔력은 부분이 없어야 한다. 팔력거릴 경우, 말에게 겁을 줄 수 있고, 누군가가 쫓아오는 것으로 여겨 말이 흥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말들은 방수천의 소음에도 예민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의 방수소재는 입기에 가볍고 편안하며, 통기성이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소리가 나는 방수재질의 옷은 말이 그 소리에 겁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KRA한국마사회, 2001). 보호 조끼는 낙마 사고 시 몸통과 어깨를 보호하도록 디자인 되어야 하는데, 신체에 잘 맞아야 하고, 기승자의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을 정도로 편안해야 한다. 또한 기승자에게 가장 다치기 쉬운 부분은 머리므로 항상 본인의 헬멧을 쓰고 턱 끈을 조인 후 기승해야 하며, 낙마로 충격을 받은 헬멧은 반드시 교체해야만 한다(KRA한국마사회, 2001). 충격을 받은 헬멧을 쓸 경우, 다음 사고 시에 머리 부위를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승마바지는 승마자세의 기능과 동작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안장과 접촉하는 부분은 내구성이 좋고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좋은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승마 동작에도 편안함을 느끼고, 촉감을 좋게 하기 위해 탄력 있고 견고하게 디자인된 것이 특징(김운영, 2009)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매일 기승할 경우에는 자주 세탁해도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어두운 색은 가벼운 색보다 실용적이며, 평보, 경속보, 구보, 습보 등 다양한 속도상황에서 안장과 접촉하는 부분의 마찰에 대비하여 가죽이나

인조가죽으로 엉덩이와 무릎에 덧대어져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한국마사회, 2001)고 하였다. 무릎 및 종아리 부분은 개선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으로 앉은 자세에서 과도한 주름과 당김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혈류가 잘 통하지 않고, 발한이 잘 되지 않아 불쾌하게 느끼는 부위이므로, 무릎둘레, 발목둘레, 종아리길이에 알맞은 여유분과 신축성이 부여되어야만 한다(최혜선 외, 2001). 무릎둘레와 종아리 부분에 적당한 신축성을 부여하여 승마시 지나치게 끼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여유분이 너무 많아도 다리에 부담이 되므로 무릎운동시의 신체표면의 신장률을 측정하여 적절하게 설계하여야 한다(최혜선 외, 2001). 이렇게 탄력성이 요구되는 바지의 기능성은 소재의 스트레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데, 스트레치 소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스판덱스는 우수한 신도와 회복성을 갖춘 섬유로서, 스포츠웨어 소재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양방향성 스트레치 소재의 경우, 외관이나 착용감이 좋은 반면, 위사 방향 소재보다 가격이 비싸다(성옥진, 2000)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기승시 승마용 부츠를 신거나, 이를 대신하여 하프챗(half chap)이나 풀챗(full chap)을 함께 입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능성과 디자인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 방법 및 절차

3.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승마 인구의 지면을 확대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전국민말타기운동에 참여한 여성승마인의 바지 착용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가 말산업 육성기반 마련 및 승마 활성화를 위해 2009년 10월에 개설한 말산업 종합정보 포털 사이트인 호스피아(www.horsepia.com)에 실려 있는 여성승마인의 사진을 선택하였다. 호스피아 홈페이지의 전국민 말타기운동 관련 포토갤러리에는 이 운동에 참여한 일반인들의 사진과 동영상도 실려 있다. 이 사진들 속에서 승마복을 착용했거나 승마를 하고 있는 여성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승마용품 업체의 여성용 승마바지 디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일 승마 전문잡지인 승마매거진 2010년 1월 창간호부터 2011년 12월호까지에서 소개되었거나 광고된 4개 업체를 선택하였다. 또한 Daum, Naver, Yahoo 3개의 포털사이트에 승마복, 승마용품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검색된 업체 중에서 승마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전문쇼핑몰 19개 업체를 선택하였다. 총 23개 업체 중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는 15개였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승마복, 승마화, 승마모, 장갑, 안장, 굴레, 재갈 등이었으며, 판매하고 있는 승마복 아이템은 주로 바지, 재킷, 점퍼, 조끼 등이었다. 23개 업체 중에서 여성용 승마바지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는 22개 업체였으므로, 이 22개 업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3.2 분석 방법 및 절차

호스피아 홈페이지의 전국민말타기운동 안에 있는 포토갤러리에는 2009년 시범사업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전국민말타기운동에 참여했던 일반인들의 사진이 실려 있는데, 이 중에서 전국민말타기운동과 관련된 사진 563개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사진 563개 중에서, 바지 종류와 색상 등 바지 착용 사례를 육안으로 구별가능한 성인 여성의 사진 176개를 선별하였다. 선별된 176개의 사진에서 204명의 성인 여성을 선택하여 여성승마인의 바지 착용 사례를 빈도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승마매거진과 포털사이트를 통해 선별된 22개 승마용품업체를 대상으로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성용 승마 바지의 정보를 보고, 승마 바지의 실루엣, 디테일, 소재, 색상, 가격, 사이즈 등 여성용 승마바지의 디자인을 추출하였으며, 빈도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고찰

4.1 여성 승마인의 바지 착용 사례 분석

한국마사회가 말산업 육성기반 마련 및 승마 활성화를 위해 개설한 말산업 종합정보 포털 사이트인

호스피아 홈페이지의 포토갤러리에서 전국민말타기 운동에 참여한 일반인들의 사진 수집을 통해 여성승마인들의 바지 착용 사례를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 [표 2]와 같다.

승마바지 착용여부	빈도	%
착용	56	27.45
미착용	148	72.55
합계	204	100

[표 1] 여성 승마인의 승마바지 착용여부

착용바지 종류	빈도	%
승마바지	56	27.45
스키니진	76	37.25
청바지	60	29.41
면바지	7	3.43
레깅스	4	1.96
트레이닝웨어	1	0.49
합계	204	100

[표 2] 여성 승마인의 승마바지 종류

전국민말타기운동에 참여한 여성 승마인들의 바지 착용 사례를 파악한 결과, 관찰이 가능한 여성 승마자는 총 204명이었다. 그 중에서 승마바지 착용자는 56명(27.45%)으로 나타났으며, 승마바지 미착용자는 148명(72.55%)으로 나타났다. 승마바지 미착용자 중에서 스키니진 착용자가 76명(37.25%)으로 가장 많았고, 청바지 착용자가 60명(29.41%)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면바지 착용자 7명(3.43%), 레깅스 착용자 4명(1.96%), 트레이닝웨어 착용자 1(0.49%)명 순으로 나타났다. 스키니진과 청바지 착용자가 66.66%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승마자가 승마 시 편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스트레치성 소재로 만들어진 스키니진을 선택하였거나, 마찰에 대비하여 능직 소재로 만들어진 청바지를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하의의 경우, 승마 시 청바지를 입는 경우가 발

생한다고 한 결과(승마매거진, 2011, 11/12)와 일치하는데, 말 위에서 경속보나 좌속보를 할 경우, 바지가 뻗뻗하거나 슬기가 두꺼울 경우, 안장과와의 마찰로 인하여 불편하고,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하는 요소에 해당한다. 또한 스키니 진이나 레깅스 같은 경우, 스트레치성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승마 시 승마자가 편안함을 가질 수는 있으나, 안장과와의 접촉 시 마찰이나 미끄러움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승 시 착용한 바지의 색상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승마바지 착용자 중에서 승마바지의 색상을 살펴보면, 검정을 착용한 승마자가 23명(41.07%)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베이지 착용자 15명(26.78%), 밤색 착용자 12명(21.42%), 감색 착용자 3명(5.35%), 체크 착용자 2명(3.57%), 회색 착용자 1명(1.78%) 순으로 나타났다. 검정을 포함하여 어두운 색이라고 볼 수 있는 밤색, 감색, 회색을 착용한 승마자가 39명(69.62%)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승마복 미착용자 중에서 스키니 진 착용자 76명의 색상을 살펴보면, 감색을 착용한 승마자가 50명(65.78%)으로 가장 많았고, 연한 파랑 착용자 10명(13.15%), 검정 착용자 8명(10.52%), 시멘트색 착용자 8명(10.52%) 순으로 나타났다. 청바지 착용자 60명 중에서는 인디고블루를 착용한 승마자가 51명(85%)으로 가장 많았고, 시멘트색, 검정, 연한 파랑을 착용한 승마자가 각각 3명(0.50%)으로 나타났다. 면바지 착용자 7명 중에서는 하양 착용자가 4명(57.1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레깅스 착용자 4명 중에서는 검정을 착용한 승마자가 3명(75.0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트레이닝웨어 착용자 1명은 검정을 착용하고 있었다.

승마바지 미착용자 중에서, 면바지를 제외한 스키니 진, 청바지, 레깅스, 트레이닝웨어 착용자들의 바지 색상이 블랙, 네이비블루, 인디고블루, 그레이 등 어두운 색에 86%이상 분포되어 있었는데, 이는 성인 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의복 색상으로 블랙을 가장 선호하고, 채도가 낮은 탁한 색조를 선호한다고 한 연구 결과(김영인 외, 2000)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어두운 색은 가벼운 색보다 실용적이라는 결과

(한국마사회, 2001)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착용바지 종류	관용색명		빈도	%
승마바지	검정	N 0.5	23	41.07
	베이지	2.5Y 8.5/4	15	26.78
	밤색	5YR 3/6	12	21.42
	감색	5PB 2/4	3	5.35
	체크	.	2	3.57
	회색	N 5	1	1.78
	합계		56	100
스키니 진	감색	5PB 2/4	50	65.78
	연한 파랑	2.5PB 8/6	10	13.15
	검정	N 0.5	8	10.52
	회색	N 6	8	10.52
	합계		76	100
청바지	인디고블루	2.5PB 2/4	51	85.00
	연한 파랑	2.5PB 8/6	3	0.50
	검정	N 0.5	3	0.50
	회색	N 6	3	0.50
	합계		60	100
면바지	하양	N 9.25	4	57.14
	베이지	2.5Y 8.5/4	2	28.57
	회색	N 5	1	14.28
	합계		7	100
레깅스	검정	N 0.5	3	75.00
	감색	5PB 2/4	1	25.00
	합계		4	100
트레이닝 웨어	검정	N 0.5	1	100
	합계		1	100

[표 3] 여성 승마인이 착용한 바지 색상

면바지 착용자의 경우, 화이트를 착용한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이는 마장마술에서는 연미복에 흰색

승마바지를 착용(김운영, 2009)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사진이나 정보에 대해 승마자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전국민말타기운동에 참여한 여성 승마인들은 승마바지보다는 평상복을 입고 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으며, 이에 골프웨어처럼 평상복으로도 활용 가능한 승마복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4.2 승마용품 업체의 여성용 승마바지의 디자인 분석

4.2.1. 실루엣과 디테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판매용 여성 승마바지 디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승마 전문잡지인 승마매거진과 Naver, Yahoo, Daum 3개의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선별된 22개 승마용품 업체를 중심으로, 여성용 승마 바지의 실루엣과 디테일을 분석하였다. 22개의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총 124개였다. 실루엣과 디테일로 나누어 디자인을 세분화시킨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그림 1]에서 [그림 5]와 같이 도식화로 나타낼 수 있다.

실루엣은 타이트하게 몸에 밀착되는 형태가 114개(91.93%)로 나타났으며, 앞허리 부분에 2개의 주름이 있어 약간의 여유가 있는 형태는 3개(2.41%), 허리선에 주름은 없지만 허벅지부분에 여유가 있는 형태는 2개(1.61%), 허리와 엉덩이, 허벅지까지는 밀착되고 무릎아래는 부츠 컷인 형태는 2개(1.61%), 배기형태는 3개(2.41%)로 나타났다. 레깅스와 같이 타이트하게 몸에 밀착되는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격렬한 동작에도 편안함을 느끼고 촉감을 좋게 하기 위해 탄력 있고 견고하며, 동작을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몸에 잘 맞는 것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결과(김운영, 2009)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바지가 하반신에 밀착되지 않을 경우, 바지와 의 유격에 의한 마찰로 궁둥이에 찰과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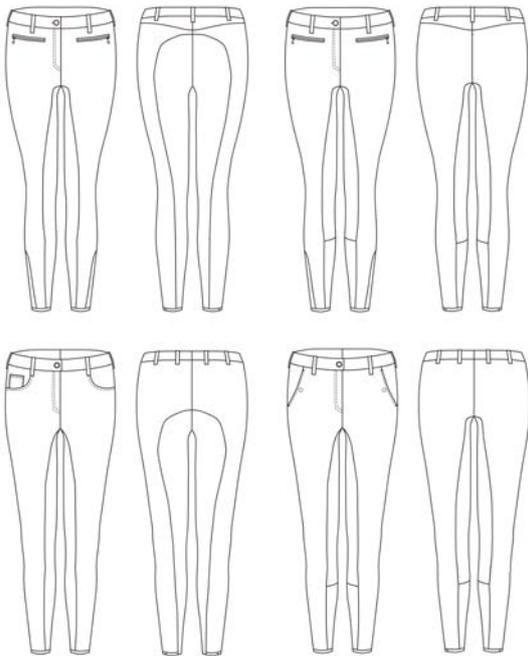
디테일을 살펴보면, 안장과 접촉하는 부위에 마찰과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 내구성이 좋은 소재(가죽이나 인조가죽)로 덧댄 것과 포켓으로 크게 나

누어 볼 수 있었다.

항목	구분	빈도	%		
실루엣	매우 밀착된 형태	114	91.93		
	허리선에 2개의 주름, 앞부분에 여유가 있는 형태	3	2.41		
	허리선에 주름이 없고, 힙 부분에 여유가 있는 형태	2	1.61		
	허리와 엉덩이는 타이트하고 무릎아래는 부츠 컷 형태	2	1.61		
	배기 형태	3	2.41		
	합계	124	100		
디테일	덧댄	궁둥이와 무릎 안쪽까지 덧댄	106	85.48	
		무릎안쪽에만 덧댄	8	6.45	
	부위	2개 주름	무릎 안쪽에만 덧댄	10	8.06
		주름 없음			
		부츠 컷			
		배기			
	합계	124	100		
	포켓	매우 밀착	허리아래 가로 지퍼로 된 포켓	91	73.38
			프런트 힙 포켓	23	18.54
			프런트 힙 포켓	3	2.41
주름 없음		프런트 힙 포켓	2	1.61	
		프런트 힙 포켓	1	0.80	
부츠 컷		엉덩이 뒤 포켓	1	0.80	
		프런트 힙 포켓	3	2.41	
합계	124	100			

[표 4] 승마용품 업체에서 판매되는 승마 바지의 실루엣과 디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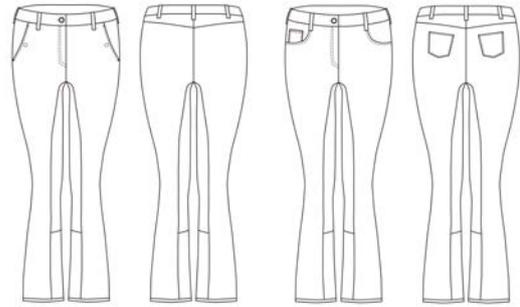
124개의 제품 중에서, 덧댄 부위의 경우, 매우 밀착된 형태는 궁둥이에서 무릎 안쪽까지 덧댄 경우가 106개(85.48%)였으며, 무릎 안쪽에만 덧댄 경우는 8개(6.45%)였다. 궁둥이에서 무릎 안쪽까지 가죽이 대어져 있는 것은 마장마술용으로, 승마용으로 가장 먼저 선택되는 바지라고 할 수 있다. 마장마술의 특성상 말과의 일체감이 중요하므로, 안장과 접촉면이 마찰에 견딜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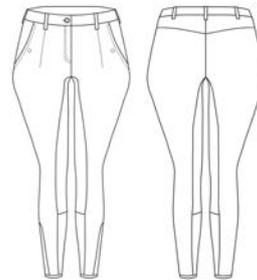
[그림 1] 하반신 전체가 매우 밀착된 형태
궁둥이와 무릎안쪽 패치 / 무릎안쪽 패치
가로 지퍼 포켓 / 프론트 힙 포켓



[그림 2] 허리선에 2개의 주름이 없
주름, 앞에 여유가 있는 고 힙에 여유가 있는
형태, 무릎안쪽 패치, 형태, 무릎안쪽 패치,
프론트 힙 포켓 프론트 힙 포켓



[그림 4] 허리와 엉덩이는 타이트하고 무릎 아래는 부츠컷 형태, 무릎안쪽 패치, 프론트 힙 포켓



[그림 5] 배기 형태,
무릎안쪽 패치,
프론트 힙 포켓

앞허리 부분에 2개의 주름이 있어 약간의 여유가 있는 형태, 허리선에 주름은 없지만 허벅지부분에 여유가 있는 형태, 허리와 엉덩이, 허벅지까지는 밀착되고 무릎아래는 부츠 컷인 형태, 배기형태에서는 모두 무릎 안쪽에만 가죽을 덧댄 경우였다. 무릎 안쪽에만 가죽이나 인조가죽을 덧댄 경우는 장애물 경기용으로, 점프시 엉덩이를 안장에서 띄어야 하기 때문에 궁둥이 부분에 가죽을 덧댈 필요가 없게 디자인된 것으로 보인다. 궁둥이에서 무릎 안쪽까지 가죽이나 인조가죽으로 덧대어져 있는 경우가 전체에서 8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승마바지의 경우, 승마자세의 기능과 동작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안장과 접촉되는 부분은 내구성이 좋은 소재를 덧대어, 미끄러움을 방지하고, 마찰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결과(김운영, 2009)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포켓은 허리아래 우측이나 좌측에 가로 지퍼로 된 작은 포켓과 프론트 힙 포켓, 그리고 궁둥이 부위에

부착된 패치 포켓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124개의 제품 중에서, 매우 밀착된 형태의 경우, 허리 아래 가로 지퍼로 된 작은 포켓이 91개(73.38%)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프런트 힙 포켓은 23개(18.54%)로 나타났다. 앞허리 부분에 2개의 주름이 있어 약간의 여유가 있는 형태와 허리선에 주름은 없지만 허벅지부분에 여유가 있는 형태, 그리고 배기형태에서는 모두 프런트 힙 포켓이 달려 있었으며, 부츠컷 형태의 경우만 프런트 힙 포켓과 궁둥이에 부착된 패치포켓이 각각 1개(0.80%)씩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승마시 기승자의 손은 승마용 장갑을 낀 채로 계속해서 고삐가 늘어지지 않고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삐를 살짝 당겨 잡고 있어야 하므로, 주머니를 사용하기 어렵다. 또한 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말 등이 상하좌우로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흔들리는 데, 승마자는 당황하여 안정된 자세를 흐트러뜨릴 수 있고, 승용마는 낯선 사람을 태울 경우 머리를 상하 좌우로 흔들며 예측 불허의 행동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프런트 힙 포켓에 내용물을 넣었을 경우, 주머니 안의 내용물이 흘러질 수 있기 때문에, 포켓 입구 중앙에 잠금 단추를 배치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포켓이 허리 아래 가로 지퍼로 되어 있어 최소한의 내용물만 넣고 지퍼로 닫을 수 있도록 디자인 된 것으로 보인다. 궁둥이에 부착된 패치 포켓의 경우 124개의 제품 중에서 단 1개만이 나타났는데, 이는 내용물을 넣고 안장에 앉을 경우, 안착감이 좋지 않아 불편하며, 불편함은 낙마의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미미하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승마용품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승마 바지의 실루엣과 디테일은 다양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시접 부분의 피부 쓸림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절개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승마바지 개발시, 다양한 실루엣, 디테일이 필요하며, 시접 부분의 피부 쓸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감각적인 절개 라인과 무시접 봉제기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4.2.2. 소재와 색상

선별된 22개 승마용품 업체를 중심으로 여성용 승마 바지의 소재와 색상을 분석하였다.

항목	구 분	빈도	%
소재	면95%/스판덱스5%	32	25.80
	면65%/나일론27%/스판덱스8%	28	22.58
	면50%/나일론44%/스판덱스6%	5	4.03
	면32%/나일론60%/스판덱스8%	3	2.41
	면26%/폴리67%/스판덱스7%	2	1.61
	울95%/스판덱스5%	1	0.80
	나일론100%	1	0.80
	폴리에스테르100%	1	0.80
	소재정보 없음	51	41.12
	합계	124	100
색상	블랙	57	25.11
	그레이	19	8.37
	화이트	23	10.13
	크림/라이트 옐로우	6	2.64
	베이지	29	12.77
	브라운/모카	21	9.25
	브론즈	1	0.44
	와인	2	0.88
	카키/올리브	20	8.81
	네이비블루	12	5.28
	블루	13	5.72
	라이트블루	2	0.88
	인디고블루	5	2.20
	네이비블루 체크	8	3.52
	브라운 체크	8	3.52
	차콜 체크	1	0.44
	합계	227	100

[표 5] 승마용품 업체에서 판매되는 승마 바지의 소재와 색상

소재의 경우 124개의 제품 중에서 소재 정보가 제시되지 않은 제품이 51개(41.12%)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소재 정보가 있는 73개의 제품을 살펴본 결과, 면 95%, 스판덱스 5%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이 32개(25.80%)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면 65%, 나일론 27%, 스판덱스 8%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이 28개(22.58%)로 그 뒤를 이었다. 면 50%, 나일론 44%, 스판덱스 6%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이 5개(4.03%), 면 32%, 나일론 60%, 스판덱스 8%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이 3개(2.41%), 면 26%, 폴리 67%, 스판덱스 7%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이 2개(1.6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울 95%, 스판덱스 5% 제품, 나일론 100% 제품, 폴리에스테르 100% 제품은 각각 1개(0.8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면제품과 혼방한 경우가 56.43%였으며, 특히 면65% 이상인 제품이 48.38%로 나타났다. 소재정보가 없는 제품이 41.12%나 되므로, 실제 제품들의 경우, 면 혼방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승마바지의 경우, 매일 기승할 경우에는 자주 세탁해도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결과(한국마사회, 2001)와 일치하며, 또한 내구성과 신축성에 대응하는 소재로 주로 면, 나일론, 스판덱스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소재정보가 있는 73개 제품 중에서 3개 제품을 제외한 70개(56.48%)의 제품에 스판덱스가 5%이상 함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스트레치 소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스판덱스는 우수한 신도와 회복성을 갖춘 섬유로서, 스포츠웨어 소재로 많이 이용되며(성욱진, 2000), 신체에 적합하고 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신축성 있는 소재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최혜선 외, 2001)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승마바지 소재가 주로 면, 나일론, 스판덱스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승마바지 개발시, 안장과의 마찰을 견디고, 운동시 땀을 배출할 수 있으며, 잦은 세탁에 견딜 수 있는 소재 선택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활동성 및 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신축성을 우선적인 요

소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디자인에 있어서 색상은 시각적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24개의 제품에서 227개의 색상이 나타났고, 227개의 색상 중에서 블랙이 57개(25.11%)로 가장 많이 나타났었다. 그 다음은 베이지 29개(12.77%), 화이트 23개(10.13%), 브라운/모카 21개(9.25%), 카키/올리브 20개(8.81%), 그레이 19개(8.37%) 순으로 나타났다. 블루 색상의 제품은 블루 13개(5.72%), 네이비블루 12개(5.28%), 인디고블루 5개(2.20%), 라이트블루 2개(0.88%)를 합하면 14.08% 이르렀으며, 체크 제품은 네이비블루 체크 8개(3.52%), 브라운 체크 8개(3.52%), 차콜 체크 1개(0.44%)를 합하면 7.48%로 나타났다. 이 외에 크림/라이트옐로우 6개(2.64%), 브론즈 1개(0.44%), 와인 2개(0.8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색상이 다양하지 않았으며, 어둡고 진한 색의 제품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특히 블랙의 경우, 단일 색상으로 25% 이상을 보였는데, 이는 성인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의복 색상으로 블랙을 가장 선호하며, 채도가 낮은 탁한 색조를 선호한다고 한 연구 결과(김영인 외, 2000)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블랙은 가장 날씬하게 보이는 색이면서, 상의와의 배색에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많은 구비를 해놓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어둡고 진한 색상이 많이 보이는 가운데, 화이트가 10.13%나 나타났는데, 이는 마장마술의 경우 연미복에 실크모자와 흰색 승마바지를 착용해야 하는데, 이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파악된다.

4.2.3. 가격 및 사이즈

선별된 22개의 승마용품 업체를 중심으로 여성용 승마 바지의 가격 및 사이즈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가격대는 124개의 제품 중에서 250,000~299,000원대가 39개(31.45%)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50,000원~199,000원대가 28개(22.58%), 300,000원~349,000원대가 16개(12.90%), 100,000원~149,000원대가 12개(9.67%), 200,000원~249,000원대가 11개(8.87%) 순으로 나타났다.

항 목	구 분	빈 도	%
가 격 (₩)	800,000	1	0.80
	350,000~399,000	4	3.22
	300,000~349,000	16	12.90
	250,000~299,000	39	31.45
	200,000~249,000	11	8.87
	150,000~199,000	28	22.58
	100,000~149,000	12	9.67
	100,000 미만	5	4.03
	가격 정보 없음	8	6.45
	Total	124	100
사 이 즈 (inch)	34 inch 이상	8	1.78
	32~33 inch	60	13.36
	30~31 inch	85	18.93
	28~29 inch	96	21.38
	26~27 inch	109	24.27
	24~25 inch	80	17.81
	22~23 inch	6	1.33
	20~21 inch	5	1.11
	Total	449	100
사 이 즈 (호칭)	48	5	3.24
	46	5	3.24
	44	20	12.98
	42	24	15.58
	40	28	18.18
	38	29	18.83
	36	31	20.12
	34	12	7.79
	Total	154	100

[표 6] 승마용품 업체에서 판매되는 승마 바지의 가격 및 사이즈 분석

350,000원~399,000원대는 4개(3.22%), 10만원대 미

만은 5개(4.03%)로 나타났으며, 가격정보가 없는 제품도 8개(6.45%)나 나타났다. 200,000원 이상의 가격대가 57.24%에 이르러 고가의 가격대로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탄력성이 요구되는 바지의 기능성은 소재의 스트레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며, 양방향성 소재의 경우, 외관이나 착용감이 좋은 반면, 위사 방향 소재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연구 결과(성옥진, 2000)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승마바지 개발시, 라인 절개를 통해 신축이 필요한 부분만 양방향성 소재를 일부 적용하든지 또는 가격 면에서 보다 경제적인 일방향 스트레치 소재에 대한 일부 사용도 고려할만한 요소로 파악된다. 사이즈는 허리사이즈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 26인치~27인치가 24.27%로 가장 많았으며, 28~29인치는 21.38%, 30~31인치는 18.93%, 24~25인치는 17.81%, 32~33인치는 13.36% 순으로 나타났다. 34인치 이상은 1.78%에 불과하였으며, 22~23인치 1.33%, 20~21인치는 1.11%로 나타났다. 독일에서 수입한 제품의 경우, 호칭으로 표기가 기입되어 있었는데, 36이 20.12%로 가장 많았고, 38과 40은 각각 16.83%, 18.18%로 나타났다. 42는 15.58%, 44는 12.98%, 34는 7.79% 순으로 나타났다. 46과 48은 각각 3.24%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허리사이즈를 기준으로 24인치에서 31인치까지에 82.39%가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들의 대응 사이즈라고 할 수 있는 36, 38, 40, 42, 4개의 사이즈에 72.71%가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5. 결론 및 제언

승마 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생활승마 육성 및 승마를 국민스포츠로 정착시키기 위한 일련의 한 방법으로, 골프 웨어처럼 평상복으로 입을 수 있으면서, 기능성을 가진 다양한 디자인의 중저가의 승마바지 개발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보급형 승마바지 개발에 앞서, 전국민말타기 운동에 참여한 여성승마인의 승마바지 착용 사례를 살펴보고, 승마용품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성용 승마바지의 디자인을 분석 및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여성 승마인의 바지 착용 사례

전국민말타기 운동에 참여한 여성 승마인들은 승마시 승마바지를 미착용한 경우가 72.55%나 되었으며, 승마바지를 착용한 경우는 27.45%에 불과하였다. 승마바지 미착용자는 주로 스키니진과 청바지를 착용(66.66%)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키니진과 청바지는 안쪽 무릎에 두꺼운 솔기선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승시 안장과 마찰로 인하여 불편하고,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승마바지의 색상의 경우, 블랙 색상을 착용한 승마자가 41.07%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블랙을 포함하여 어두운 색이라고 볼 수 있는 브라운, 네이비블루, 그레이를 착용한 승마자가 69.62%로 나타났다. 승마바지 미착용자 중에서도, 면바지를 제외한 스키니진, 청바지, 레깅스, 트레이닝웨어 착용자들의 바지 색상도 블랙, 네이비블루, 인디고블루, 그레이 등 어두운 색에 86%이상 분포되어 있었다. 승마바지용으로 블랙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어두운 색은 가벼운 색보다 실용적이며, 낯선해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업체에서 판매되는 승마바지의 디자인 분석

승마바지의 실루엣은 타이트하게 몸에 밀착되는 형태가 91.93%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바지가 허반신에 밀착되지 않을 경우, 바지와 유격에 의한 마찰로 궁둥이에 찰과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기승시 동작을 편안하게 하면서, 탄력이 있고 견고하게 디자인되었다고 판단된다. 디테일은 궁둥이에서 무릎 안쪽까지 가죽이나 인조가죽을 덧댄 경우가 85.48%로 가장 많았고, 무릎 안쪽에만 덧댄 경우는 14.52%에 불과했다. 승마자세의 기능과 동작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안장과 접촉하는 부분을 내구성이 좋은 소재를 덧대어, 미끄러움을 방지하고, 마찰에 견딜 수 있도록 기능성에 역점을 두어 디자인된 것으로 파악된다. 포켓은 허리 아래 우측이나 좌측에 가로 지퍼로 된 작은 포켓이 73.38%로 가장 많이 나타

났고, 그 다음은 프론트 힙 포켓이었으며, 궁둥이 부위에 부착되어 있는 패치 포켓은 단 한건에 불과했다. 이는 승마를 할 때, 주머니 안의 내용물이 흘러질 수 있는 것에 대비하여, 대부분의 포켓이 허리 아래 가로 지퍼로 되어 있어 최소한의 내용물만 넣고 지퍼로 닫을 수 있도록 디자인 된 것으로 보여 진다.

승마바지의 소재는 소재 정보가 제시되지 않은 제품이 41.12%였으며, 면 95%, 스판덱스 5%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이 25.8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면제품과 스판덱스가 혼방되어 있는 경우가 56.43%나 되었는데, 기승시 땀이 배출되므로 내세탁성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승마바지의 색상은 블랙이 25.1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은 베이지 12.77%, 화이트 10.13% 순으로 나타났다. 색상이 다양한 편은 아니었으며, 어둡고 진한 색의 제품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는 상의와의 배색 때문에 무난한 검정색이 주로 구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어둡고 진한 색상이 다수인 가운데, 화이트가 10.13%나 나타났는데, 이는 마장마술의 경우 연미복에 실크모자와 흰색 승마바지를 착용해야 하는데, 이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파악된다.

여성용 승마 바지의 가격대는 250,000원~299,000원대가 31.45%로 가장 많았고, 200,000원 이상의 가격대가 57.24%에 이르러 고가의 가격대로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탄력성이 요구되는 바지의 기능성은 소재의 스트레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며, 스트레치 소재 중에서 양방향성 소재의 경우, 외관이나 착용감이 좋은 반면, 워시 방향 소재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여성용 승마바지의 사이즈는 허리사이즈와 호칭으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허리사이즈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 26인치~27인치가 24.27%로 가장 많았으며, 28~29인치는 21.38% 순으로 나타났다. 독일에서 수입한 제품의 경우, 호칭으로 표기가 기입되어 있었으며, 36이 20.12%로 가장 많았고, 38과 40은 각각 16.83%, 18.18%로 나타났다. 허리사이즈를 기준으로 24인치에서 31인치까지에 82.39%가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들의 대응 사이즈라고 할 수 있는 36, 38, 40,

42, 4개의 호칭에 72.71%가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민말타기운동에 참여한 여성 승마인들은 승마바지보다는 평상복을 입고 타는 경우가 많았고, 정부는 2016년까지 승마 인구를 현재 2만 5천명에서 5만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골프웨어처럼 평상복으로도 활용 가능한 승마복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승마복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승마용품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승마 바지는 기능성에 역점을 두어 실루엣과 디테일이 다양하지 않았으며, 안장과와의 마찰 방지 및 시접 부분의 피부 쓸림을 방지하기 위한 일정한 절개 라인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승마바지 개발시, 다양한 실루엣과 디테일이 요구되며, 안장과와의 마찰 방지 및 시접 부분의 피부 쓸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감각적인 절개 라인과 무시접 봉제기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셋째, 판매되고 있는 승마바지 소재는 주로 면, 나일론, 스판덱스에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승마바지 개발시, 안장과와의 마찰을 견디고, 운동시 땀을 배출할 수 있으며, 잦은 세탁에 견딜 수 있는 다양한 소재 선택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활동성 및 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신축성이 우선적인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판매되고 있는 승마바지 가격은 주로 200,000원대 이상의 고가의 가격대로 포진되어 있었는데, 승마복이 평상복으로도 활용 가능하기 위해서 가격대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능성을 겸비한 소재의 선택 및 사용도 중요하지만, 라인 절개를 통해 신축이 필요한 부분만 양방향성 소재를 일부 적용하든지 또는 가격 면에서 양방향성 스트레치 소재보다 경제적인 위사방향 스트레치 소재에 대한 일부 사용도 고려할만한 요소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디자인 및 기능성을 겸비한 중저가 보급형 승마바지 개발을 위한 기초 정보에

제공될 것이며, 평상복으로도 활용 가능한 승마바지 제품 개발에도 활용될 것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여성승마인의 승마바지 착용 사례가 전국민말타기운동에 참여한 여성승마인의 사진을 통해 추출되었으므로,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디자인 및 기능성을 겸비한 중저가 보급형 승마바지 개발과 함께 승마시 골반과 요추 및 고관절의 동작에 의한 체표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승마바지의 패턴 연구 및 안장과와의 마찰을 줄이면서도 편안하게 기승할 수 있는 소재 선택 및 봉제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국내 1000억대 승마시장, 뉴 마켓으로. (2010.12). 패션비즈.
- 강권영, 송병호 (2000). 「뇌성마비 아동에 대한 승마시물레이션 훈련이 대동작 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5), 277-284 .
- 김영인, 문영애, 한소원 (2000). 「한국 성인남녀의 의복 선호색」, 『한국의류학회지』, 24(7), 964-975.
- 김운영 (2009). 『클래식승마』. 경기 : 김영사.
- 김명희, 최병익 (2010).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승마산업 도입 방안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17(2), 327-346.
- 말산업 육성, 1만명 고용 창출 (2012.07.16). 아시아경제.
- 말산업 전담기관 한국마사회, 제 2의 도약 이룬다 (2012.07.16). 스포츠조선.
- 박용식, 서갑호, 오승섭, 박성호, 서진호 (2012). 「승마 로봇 시뮬레이터 HRB-1을 위한 말의 보행 및 부조의 표현」, 『제어·로봇·시스템학회』, 18(3), 181-187.
- 사라무어 & 데이비 슬라이 저, 강은지 역 (2001). 『승마와 말』. KRA한국마사회.
- 성욱진 (2000). 「스트레칭성 소재를 이용한 슬랙스 원형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승마 주요 행사 일정 2010 ~2012』. (2011.03.04). 승마매거진.
- 『승마입문자를 위한 코너』. (2010.11.12). 승마매거진.
- 『승마안전을 위한 의복과 장비』. (2011.07.08). 승마매거진.
- 신예지, 백용현, 박동석, 김재규, 고희균 (2010).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독활·승마 복합처방의 대사조절을 통한 연골 보호 효과. 『대구침구학회지』, 24(7), 39-53
- 오운용, 류재청, 김진현, 현승현 (2009). 제주마를 이용한 승마 경속보시 숙련도에 따른 기승자세의 운동학적 비교 분석」, 『한국운동역학회지』, 19(3), 467-479.
- 『이제는 말(馬)이다』. (2011.05.06). 승마매거진.
- 임미섭, 임준홍 (2009). 「승마용 헬스 케어 로봇 시스템과 신체 상태 지수 관리기술」, 『로봇학회 논문지』, 4(4), 327-333.
- 최혜선, 박진희, 이경미, 도윤희, 김은경 (2001). 『액티브스포츠웨어』. 서울 : 수학사.
- 케이트박 (2010). 『승마, 느린걸음』.
- 『1000억대 승마시장, 뉴마켓으로』. (2011.01). 패션비즈 매거진.
- 하희정 (2011). 국내 승마용품업체의 현황 및 승마복제품의 분석. 『복식문화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10, 283-284.
- 한국마사회 김광원회장 인터뷰. (2010.03.04). 승마매거진
- KRA 한국마사회 승마 활성화팀 (2011). 『알고 즐기면 더 재미있는 승마』. 한국마사회.
- B. Heine (1997). 「An introduction to hippotherapy」, 『NARHA Strides magazine』, 3(2), 10-13.
- G. S. Liptak (2005).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es for cerebral palsy」,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search Reviews』, 11(2), 156-163.